

오늘의 눈으로 본 '20년 전 그녀들의 감성'

September 7, 2016 | 함혜리 선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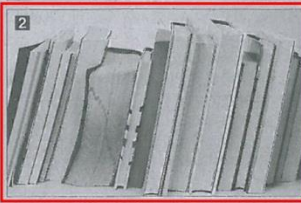
오늘의 눈으로 본 '20년 전 그녀들의 감성'

이불·정서영·김소라 '커넥트...'展

이불, 정서영, 김소라는 모두 여성이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아트선재센터에서 각자 본격적인 데뷔전을 가진 후 작가로 출근 활동하고 있다. 3명의 작가가 20년 전의 전시들을 오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커넥트 1: 스틸 액츠(Still Acts)' 전을 갖고 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가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아트선재센터가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는 의미로 기획한 전시다. 아트선재센터는 1995년 미술관 부지에서 열린 '씩' 전에서 출발해 1998년 정식 개관 이후 시설 보수를 위해 2005년 처음 휴관했고, 이번이 두 번째 휴관이였다. 김선정 관장은 "'씩' 전부터 2005년까지의 작업을 살펴보기 위해 그 기간에 개인전을 가진 여성작가 3명의 작품을 중심으로 예전과 현재를 잇는 전시를 기획했다"며 "미술관과 작품 소장자에 대한 여러 담론을 촉발하는 계기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1~3층에서 열리는 전시는 한 작가가 한 층에서 전시하는 개인전 형태로 구성됐다. 3층에선 세계적 작가로 맹활약 중인 이불(52)의 전시가 열린다. 아트선재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이불의 대표작 '사이보그'를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과장된 신체 비율을 가진 이불의 사이보그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여성의 열망이나 이를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을 떠올리게 하면서 여성에 대한 시선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



1 2000년 아트선재센터 열린 개인전과 같은 모습으로 설치된 정서영 작가의 작품들. 2 2004년 선보인 김소라 작가의 '라이브러리' 일부. 3 이불의 대표작 '사이보그'와 생선에 비즈를 박아 벽면을 채운 '장엄한 광채' 설치장면. 아트선재센터 제공

았었다. 이번 전시에는 1998년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사이보그 연작 가운데 4점이 설치됐다. 과거의 작품이지만 비닐로

감싸고 바닥에는 종이 박스를 깔아 현재의 느낌을 부각시켰다.

구슬과 스펅글로 화려하게 장식한 조기를 담은 비닐봉지 수십 개로 벽면을 메운 작품 '장엄한 광채'도 20여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씩'전에서 선보였던 이 작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고기가 썩어 들어가며 비린내가 악취로 변하면서 위력을 발휘한다. 뉴욕현대미술관 전시 당시 시각 중심의 미술에 후각을 끌어들이며 전통적인 시각예술 위계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쉽게 변하는 생선을 사용해 시간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조각이 가지는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이다. 생선에 올린 수공예 비즈 장식은 한국 여성의 노동 문제와 맞닿아 있다.

2층에는 조각가 정서영(52)이 2000년 개인전에서 보여준 세 점의 작품이 16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설치됐다. 작가가 친구로부터 받은 엽서 한 면에 채워진 수영장 사진 한쪽 구석의 전망대 이미지에서 착안해 만든 작품 '전망대'와 흰색 스티로폼을 깎아 만든 거대한 크기의 꽃봉오리를 형상화한 작품 '꽃', 아파트 수위실의 책상을 연상케 하는 '수위실'을 선보인다. 1층 공간에는 김소라(50) 작가의 '라이브러리'가 설치됐다. 2004년 김홍석과의 2인전 '안타르티카'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증받은 1100여권의 책으로 책장을 매웠던 작가는 이번에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버려도 되는 책' 100여권으로 대신했다. 전시는 11월 20일까지.

함혜리 선임기자 | otus@seoul.co.kr